

휘발유값 11주 연속 하락... ℓ 당 1천896.3원



석유공사 "당분간 소비자가격 상승 압력받을 것"

휘발유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번 주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1.8원 내린 ℓ 당 평균 1천896.3원을 기록했다.

경유는 1.7원 떨어진 1천695.8원, 등유는 2.8원 하락한 1천352.5원으로 한 주를 마감했다.

지역별로는 휘발유 기준 서울(1천972.3원), 제주(1천945.3원), 세종(1천913.8원) 등 순으로 가격이 비쌌다. 광주(1천867.6원), 대구(1천868.1원), 울산(1천870.7원) 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가 형성됐다.

주유소별로는 SK에너지 1천910.44원, GS칼텍스 1천903.35원, 에쓰오일 1천885.93원, 현대오일뱅크 1천884.25원 순으로 비쌌다. 알뜰주유소는 1천871.06원이었다.

소비자 가격과는 반대로 정유사 공급가격은 2주 연속

상승했다.

휘발유는 지난주보다 2.3원 오른 881.2원, 경유도 8.7원 뺀 932.6원을 각각 기록했다.

정유사별로 보면 세후 기준으로 휘발유는 현대오일뱅크가 1천801.14원으로 가장 높고, SK에너지가 1천778.79원으로 가장 낮았다.

자동차용 경유는 SK에너지가 1천610.95원으로 최고가를, 에쓰오일이 1천598.14원으로 최저가를 각각 기록했다.

휘발유 소비자가격 구성비를 보면 세금이 918.3원으로 48%를 차지해 정유사 생산원가(881.2원·46%)보다 높았다. 유통비용·마진은 96.9원으로 5%를 차지했다.

석유공사는 최근 국제유가 강세의 영향으로 당분간 국내 석유제품 소비자 판매가격도 상당 부분 상승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성장률, 15년 만에 일본에 역전 전망



소비침체, 인구감소, 투자위축에 '장기불황' 진입 가능성

한국의 경제 성장이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될 전망이다.

한국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일본은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웃돌아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내수 침체에다 생산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이 겹친 한국이 과거 '일본식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등에 따르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로 지난해 2.0%, 올해 1분기 0.9%를

각각 나타냈다.

한국도 지난해 2.0%, 올해 1분기 0.9%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일본과 성장률이 정확히 일치한 셈이다. 한은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췄다. 일본은행은 올해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높였다.

이 같은 양국 중앙은행의 전망치가 들어맞으면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한국 -5.7%, 일본 -2.0%) 이후 15년 만에 일본에 경제성장률이 역전당한다.

한국의 성장률은 그동안 일본을 줄곧 큰 차이로 앞질렀다.

일본은 외환위기 이후 4차례 마이너스 성장할 정도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2009년 0.3%에서 2010년 6.3%로 'V자' 반등한 이후 2011년 3.7%, 2012년 2.0%로 다시 고꾸라졌다.

잠재성장률인 3.6~3.8%를 3년 연속 밑도는 셈이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벗어난 일본은 2년 연속 잠재성장률(0.8%)을 웃돌아 올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의 엇갈린 경제 상황은 내수 지표, 기업의 경기 인식,

호주中부자겨냥투자비자로 재미... 취업비자문은 좁혀

호주 정부가 중국인 부호를 겨냥한 백만장자 비자 제도로 짜깁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호주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도입한 중요투자자비자(SIV)를 170명이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모두 받아들이면 호주로 유입되는 총투자액은 8억5000만호주달러(약 1조200억원)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SIV는 최소 500만호주달러(약 56억원)를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최대 4년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 뒤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도 준다. 호주 정부는 SIV 수익을 연방이나 주 정부 채권과 펀드, 비상장 호주 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WSJ는 전했다.

국제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는 SIV 신청자가 연 최대 700명, 투자액은 35억호주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호주 정부가 비자를 미끼로 해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이유는 10년 이상 이어져 온 광산업 열기가 식고 있기 때문이다. 페니 윙 호주 재무장관은 "호주가 새로운 현실과 맞닥뜨렸다"라며 "점점 둔해지는 국제 경기에 발맞춘 조치"라고 말했다.

SIV는 모든 외국인에게 개방돼 있다. 하지만 특별히 중국 부호들을 겨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고 WSJ는 보도했다. 우선 SIV의 식별번호를 '188'로 정한 점. 8은 중국인들에게 부를 상징하는 숫자다. SIV 비자 수령자가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의 식별번호도 '888'로 분류했다.

중국인 부자들이 많은 것도 이유다. 다국적 회계법인 프카이스위터하우스쿠퍼스(PwC)액은 1500만호주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중국인 부호가 6만명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호주 금융기관 베이커&매킨지의 빌 퍼글 대표는 WSJ에 "SIV는 명백하게 중국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다수의 중국인 고객들에게 SIV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SIV의 첫 수혜자도 중국인이었다. 호주 이민부는 중국 장난감 제조업자와 가족이 4개월간 자격심사를 거쳐 첫 SIV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국인 사업가는 500만호주달러를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 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정부는 부자들에게는 비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지만, 임시 거주 취업비자 제도인 '457 비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줄리아 Gillard 호주 총리는 "457 비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457 비자는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 호주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일자리 많이 만드는 외국인투자에 혜택 더 준다

외국인 투자가 일자리 만들기로 이어지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투자금 중심으로 구성된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의 올해 외국인투자촉진 시책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 창출이나 산업 혁신 등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 투자라면 금액이 다소 적더라도 혜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책은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때 고용 효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채용실적이 좋거나 대량고용 계획이 있을 경우 제조업 3천만 달

러, 관광업 2천만 달러, 물류업 1천만 달러 등으로 돼 있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신청 최소 투자 금액을 다소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 감면도 고공 효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지금은 연 임대료가 토지 가격의 1%인데 제조업체가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75%를 감면해 준다.

또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수도권보다 임대료를 10% 더 줄여준다. 고도 기술·산업지원서비스업 등 632개 기술 산업에 조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기술 변화를 고려해 상용·범용화한 기술은 제외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크거나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핵심 산업 위주로 재

정비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한 외국인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외국인 합작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국유기관 유치,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도입 등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올해 투자 유치 목표로는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핵심소재부품 사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등 4가지를 선정했다.

우선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한다. 이를 위

해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유명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한다.

그간 일본 중심으로 짜인 부품소재 유치시스템을 미국·독일로 확대한다.

또 정책금융공사 등과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를 활용해 외국 벤처 자본이 국내 중소·중견 기업에 투자되도록 유치활동을 벌인다.

대구경남권 전기전자 부품단지, 충남권 자동차부품단지, 동남권 화학소재단지, 호남권 자동차부품단지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도 추가 조성한다.



한민족음악동호회 회원 모집

한민족음악동호회 소개

한민족음악동호회는 한중문화예술발전과 교류활성화, 문화예술을 통한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한중국동포들로 무어진 봉사단체로서 중국동포 문화예술인재를 발굴하고 문화예술봉사를 통하여 한중 전통문화를 알리고 보급하면서 내국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봉사단체입니다.

한민족음악동호회는 영등포구 문화예술동호회, 서울시 "재능나눔봉사단"으로 선발된 봉사단체임

모집인원: 무용, 노래, 악기연주, 만담 등 문화예술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동포

가입문의 : ☎ (02) 2637-0814, H P : 010-6866-0815

삼성골프클럽 연습생 모집



골프에 관심있는 남, 여 모두 신청 가능
티칭프로에 의한 친절하고 철저한 1:1
개인레슨, 레슨비용 월/15만
레슨 상담전화 : 010-3068-1872

정규회원 골프장 이용료

1개월/200,000원, 3개월/550,000원
6개월/1,050,000원, 12개월/1,900,000원

주간회원 골프장 이용료: 골프장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68번지(2호선 문래역 3번출구)

1개월/165,000원, 3개월/470,000원, 6개월/900,000원, 12개월/1,700,000원

오전8시부터-오후16시까지체크-인. (17시20분 종료)

타카이용 : 3개월/30.000원, 6개월/60.000원, 12개월/100.000원